3일 광주시 서구 유덕동~치평동 구간의 도로가 움푹 파인 채 방치돼 있다. 파손된 도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고장과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해빙기 광주시내 곳곳 파이고… 금가고…

'누더기 도로' 사고 위험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폭설과 폭우 등으로 인해 도로 곳곳이 파였지만 이에 대한 정비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해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울퉁불퉁 파이거나 금이 간 '누더기 도로'는 운전자에게 부담을 줘 자칫 차량고장과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3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서구 광천터미널 구간에 있는 한 예식장 앞 도로는 대표적인 '누더기 도로'다. 도로 곳곳에 수십m 씩 균열이 있으며, 축구공 크기에 4~5㎝ 깊이로 움푹 파인 곳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또 ▲서구 광천터미널~유촌동 버들 마을~고속도로 입구 ▲서구 풍암동 마재마을 대주 아파트 105동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와 맞은편 ▲북구 임동 오거리 횡단보도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 맞은편 도로 ▲동구 광주천변 도로 등도 심하게 파손된 상태다.

광주지역에 파손된 도로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겨울에 이례적으로 많이 내린 눈과 최근 기록적인 폭우(2월 25일 68.5㎜) 때문이다. 지난 겨울 내린 눈이 오전에는 얼었다가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 다시 녹는 것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다 제설작업 시 뿌린 염화칼슘 탓에 도로 곳곳이 파손됐다는 것이다.

김석호(70·광주시 북구 임동)씨는 "10년 이상 운전한 나도 이런 웅덩이를 지나가면 깜짝 놀라는데 초보나 여성 운전자들은 오죽하겠느냐"며 "또 비가 내린 날이면 빗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에게 물이 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모범운전자연합회 유길상(60) 회장은 "날씨 탓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부실공사 탓이 아니겠느냐"면서도 "이왕 도로가 파손된 만큼 서둘러 보수하는 게 큰 사고를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파인 도로 내달까지 일제정비

광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움푹 파이거나 내려앉은 도로를 보수하고 노후 교통시설물을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3일 "도로관리과 직원을 3개조로 나눠 폭설 등의 여파로 파손된 도로와 훼손된 노면 표지 등의 개선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과 정비 대상은 도로 외에도 130여개의 교량과 지하차도, 터널, 도로표지판, 비탈면 옹벽 등 모두 2천733개 시설물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기원 비리' 전·현 임원 檢, 7명 모두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엄운규 전 국기원장 등 국기원 전·현직 임원 7명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자들을 불러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회계장부 등도 들여다봤으나 쓰인 돈의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천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작년 3월 엄 전 원장이 다른 임원들과 함께 2005년 부정 단증 발급과 관련한 개인비리 사건의 변호사비 등으로 국기원 공금 4천100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고발했다. 송봉섭 당시 국기원연수원 부원장은 퇴직금 3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더 받은 혐의로, 송상근 전 국기원 부원장은 공금 1천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진료비 39조

전년보다 12.5% 증가… 알레르기성 비염 가장 많이 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9조4천296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는 12조4천20억원과 16조3천20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3.0%와 12.5% 증가했다. 약국비용은 10조7천71억원으로 전년보다 12.0% 늘었다.

또 2004~2009년 진료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지난해 진료환자는 529만명으로 2004년 354천3명보다 174만6천명 많아졌다. 이어 같은 기간 위·식도 역류질환(152만9천명 증가), 고혈압(150만4천명 증가)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병원의 요양급여비는 전년보다 23.0% 증가한 4조8천176억원으로 기관별로 가장 많이 늘었다. 병원은 특히 지난해 입원진료비가 전년보다 23.8% 증가한 3조6천203억원을 기록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률이 55.3%로 높았다.

지난해 노인진료비는 12조391억원으로 전년보다 14.8% 늘었고 전체 진료비 비중도 2004년 전체 진료비의 22.9%에서 지난해 30.5%로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복어·독버섯 등 독성분 식중독 환자 급증

복어나 독버섯 같은 자연에 존재하는 독성분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복어나 독버섯 등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이 6건 보고됐으며, 환자수는 126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자연독 식중독 환자 총 231명(18건)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자연독 식중독 환자수는 지난 2006년까지 10명 안팎에 불과했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2명과 50명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126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7년간 발생한 자연독 식중독의 원인식품은 복어와 독버섯이 각각 6건과 4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환자수 기준으로는 원추리가 원인식품인 경우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복어의 알과 내장은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자연독을 함유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취급한 음식만 섭취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조언했다. 자연독 식중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http://fm.kfda.go.kr/)의 '식중독에 대한 이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미기록종 '신안새우난초' 발견

흑산도서…촉당 수천만원

한반도 미기록종으로 멸종 위기 식물인 '신안새우난초'가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길훈 한국 새우난 연구소장은 회원들과 함께 신안새우난초 추적 조사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해발 300m의 바다와 인접한 흑산면 한 작은 섬에서 7개체를 발견하고 지난달 말 한국식물분류학회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촉당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최고의 새우난으로 평가받는 신안새우난초는 지난 1984년 흑산면에 자생하는 것으로만 알려졌으나, 자생지 확인과 증거표본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학계에 보고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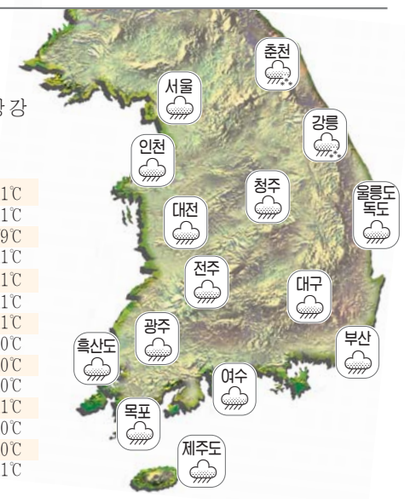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9분 해짐 18시 30분 달뜸 22시 49분 달짐 08시 38분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은 10~40㎜.

광 주	흐리고 비	7/11℃
목 포	흐리고 비	7/11℃
여 수	흐리고 비	7/9℃
완 도	흐리고 비	7/11℃
구 례	흐리고 비	7/11℃
해 남	흐리고 비	7/11℃
장 흥	흐리고 비	7/11℃
고 흥	흐리고 비	7/10℃
순 천	흐리고 비	7/10℃
영 광	흐리고 비	6/10℃
진 도	흐리고 비	7/11℃
전 주	흐리고 비	6/10℃
남 원	흐리고 비	4/10℃
흑산도	흐리고 비	5/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먼바다	동~남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2.0~3.0m
먼바다	동~남동	2.0~4.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04:37 16:44	09:41 21:55
여수	11:22 23:53	05:13 17: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날 씨						
최저/최고	7/13	5/11	4/10	2/8	3/7	-1/6

봄비 주말까지

오늘 광주·전남 10~40㎜

4일부터 사흘간 광주·전남에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광주·전남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온 뒤 밤부터 점차 갤 것"이라고 3일 예보했다. 예상강우량은 10~40㎜.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 기상청은 4일 시작된 비가 주말이자 경칩인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포근한 가운데 강우량도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일 발표한 '1개월(3월 11일~4월 10일)예보'에서 "3월 중순에 한차례 추위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한 달간은 평년보다 포근하고 비도 더 많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기온은 평년(영하 1도~영상 11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도 평년(39~140㎜)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서 정치중립 어긴 공무원 처벌

행안부, 5월부터 단속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들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15일부터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별로 위·불법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리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나 정부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외 집단 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이 대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